복음과 상담
제19권, 157-187

기독교 상담자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

박 윤 정*

국문초록

기독교 상담자는 인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기독교 상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라는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세계관 변화를 통한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세계관의 변화를 통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관 변화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지닌 기독교 상담자를 통한 기독교 상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자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 세계관의 정립을 강조하고자 함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참된 변화를 위해서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 곧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기독교 상담자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관에 따라 중심이 흔들려 타협하거나 혼합하는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자 자신의 세계관을 견고히 세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진정한 기독교 상담을 이루는데 있다.

중심단어 : 기독교상담, 기독교 상담자, 변화, 기독교 세계관, 인간 이해

• 논문 투고일: 2012년 10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12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8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www.kci.go.kr

I. 여는 글

모든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각기 처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추세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누군가 찾아와 도움을 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기독교 상담자로서는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7–40). 이것은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돕는 손길은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기독교 상담자라면 더욱 더 그 사명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인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기독교 상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상담은 상담자가 신학적 배경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게 하며 더 나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1] 그리고 기독교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비성경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성경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재교육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는 것이다.[2] 여기서 '재교육'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비성경적인 사

1) 전영복, 『기독교 상담학』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91), 37.
2)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베다니, 2002), 29.

www.kci.go.kr

고, 감정, 행동을 성경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계관'을 전수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는 것은 곧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통한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기독교상담은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에 의한 상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라는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세계관 변화를 통한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으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다. 이는 개인의 인격발달과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일반 상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분명한 차이점은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곧 세계관의 차이다.

우리가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는 어떤 가정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기독교상담은 성경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심리학과의 통합에 전제를 두는 Lawrence J. Crabb의 기본 가정을 받아들인다. 물론 심리학의 입장과 성경적 계시의 입장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있지만 상담자로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 일반 심리학적 원리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Crabb 역시 만약 심리학이 우리의 상담 기술들을 예리하게 하고 상담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심리학을 알 필요가 있다[3]고 말했다. 따라서 심리학적 원리들이 일반계시로서 하나님의 진리 곧 성경말씀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계시에 대한 유익한 정보에 눈과 귀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로서 일반계시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자에게 그 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적인 전제와 원리들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개념들을 성경에 비추어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일

3) Lawrence J. Crabb,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출판사, 2004), 32.

www.kci.go.kr

반계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올바른 세계관의 기초위에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다.

Paul Tournier는 우리의 의식적 선택이 우리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4]하고 있는데, 의식적 선택은 곧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는 선택을 통해 결정을 하고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며 행동을 나타낸다. 이때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 곧 세계관에 의해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세계관은 동기를 부여하는 선행 자극이 될 수 있으며,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 김준수 교수는 "동기는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며 인간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5] 고 말했다. 그렇다.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6]가 되며, 동기는 인간 행동에 활력을 주고 이끄는 내·외적인 힘[7]이 된다. 그리고 동기는 신체적 욕구, 환경 속에 있는 단서, 고독이나 죄의식 같은 감정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8] 이러한 동기는 우리가 타인과 접촉한 모든 경험이 원인이 되며, 이는 곧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가 그 원인이 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가지는 세계관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참된 삶의 영위' 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변화의 목표는 무엇보다 세계관의 변화를 이루는 것

4) Gary R. Collins, *The Christian Psychology of Paul Tournier,* 정동섭 역,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서울: IVP, 2003), 66.

5) 김준수, "임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108.

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0198300

7) Harold W. Faw, *Psychology in Christian Perspective,* 유명복 · 김윤아 역, 『기독교와 심리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7), 141.

8) Charles G. Morris, *Psychology an Introduction,* 6th ed., 장동환 외 공역, 『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1994), 518.

www.kci.go.kr

이다. 이러한 세계관 변화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지닌 기독교 상담자를 통한 기독교상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자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내담자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통해 잘못된 삶의 철학을 수정하고 새로운 인생관과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의 내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의 그 방향을 돌이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세계관의 정립을 강조하고자 함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참된 변화를 위해서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 곧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기독교 상담자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관에 따라 중심이 흔들려 타협하거나 혼합하는 기독교상담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자 자신의 세계관을 견고히 세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진정한 기독교상담을 이루는데 있다.

II. 펴는 글

1.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Christian Counseling)은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 일반심리상담과 구분된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상담을 하는 상담자

www.kci.go.kr

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 목회상담은 상담자가 목회자이다. 일반 심리 상담은 상담자가 비기독교인이다. 기독교상담은 상담자가 기독교인이며 평신도인 경우다. 여기서 목회상담과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이 존재하지만 일반 상담과는 그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명숙은 "일반상담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은 현대 심리학의 발달 이전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과거 2000년 전부터 이미 '영혼 돌봄(cura animarum)'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9]고 한다. 성경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전12:5)고 말하고 있는데, '영혼 돌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 된 지체들을 돌보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삶을 이끄는 것이 된다. 이러한 '영혼 돌봄' 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목회상담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상담 역시 기독교 상담자를 통한 '영혼 돌봄' 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기독교상담은 그릇된 사고, 감정, 행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 하도록 돕는 과정을 추구하면서 '영혼 돌봄' 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독교상담의 목적이 '영혼 돌봄' 이라는 하나의 측면을 염두 해두고 살펴 볼 때,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일반상담과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다.

기독교상담은 한마디로 전인적 인간으로서 회복을 돕는 것이다. 전인적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간 조직과의 관계, 창조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10] 회복을 통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옛 습관을 벗어 버리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돕는

9) 신명숙, "현대 독일 목회상담과 한국 목회상담의 전망", 『한국교회와 신학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68.

10)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현대목회상담신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46-76.

www.kci.go.kr

것이 기독교상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기독교 상담자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말 할 수 있다. William B. Oglesby는 "기독교상담은 의미 있는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적인 삶 속에 빠져서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는 목회의 한 기능이다"라고[11] 말했다. 그리고 Benner와 Hill은 "기독교상담이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와 기독교인 상담자 사이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로서 상담자는 해를 주지 않고 심리적이고 영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내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상담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안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12]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볼 때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관계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문제와 고통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게 돕는 활동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자원을 통한 전인격적 성장을 돕고 근본적으로 내담자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진정한 기독교상담을 이루기 위한 기초로서 기독교 상담자인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2. 세계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世界觀)'은 '인생관(人生觀)', '신관(神觀)'과 같은 개념형태로 쓰이면서 그 용어의 문자적 의미는 '세계를 보는 시각', '세계를 보는 관점'이란 뜻으로 영어에서는 'view of world'라고

11)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2007), 19.
12) 김용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2007), 82.

www.kci.go.kr

쓰기도 하고 독일어식으로 쓴다고 'worldview'라고 붙여 쓰기도 하며,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사실 근원적으로 독일어의 'Weltanschauung'이란 개념에서 온 것으로 'Weltanschauung'이란 개념은 독일의 근세 철학과 낭만주의 문학의 시대에 생겨난 표현으로 만유의 구조나 목적,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총체적 견해라는 뜻이며, 이 'Weltanschauung'은 독일어에서 나와서 오늘날 덴마크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13] 세계관이란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의미의 변천사 곧 개념적으로 변화되는 용어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세계관' 용어의 개념에 있어 최근의 역사를 살펴볼 때 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의미의 주요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세계관은 '성향(Gesinnung)', '인생관(Lebensauffassung)', '철학(Philosophie)', '종합적 신념(Gesamtuberzeugung)', '관점(Einstellung)', '사고방식(Denkhaltung)' 등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14] 화란, 북미, 한국 등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는 세계관을 오늘날의 의미로 정착된 Weltanschauung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고 있다.

이승구는 "일반적으로 세계관(world-view)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보는 관점(perspective)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정의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세계관은 Walsh와 Middleton이 말하는 대로 지각의 틀(perceptual framework)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고, 삶에 대한 시각(vision of life)이요, 삶을 위한 시각(vision for life)이다.[15] Charles Kraft는 세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한 사회는 서로 맞물려 연결된 일련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세계관은 무수한 역사 요인들이 장구한 세월동안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 결과

13) 전광식,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1992): 11.
14) 전광식, 『학문의 숲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98), 12-17.
15)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8), 13-14.

www.kci.go.kr

로 산출되는 것이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경험, 사물의 해석 또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16] 세계관은 넓은 의미에서 한 인간이 가지는 일련의 생각으로서, 인간의 모든 주변 세계와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의미가 부여된 하나의 신념체계이다. 그것은 인간 정신 활동에 영향을 주며 행동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 동기(motivation)로서 작동한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 언어적 비언어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세계관은 상담의 현장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관은 삶의 궁극 문제들과 세계의 근본에 대한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전제들이다.[17] 그리고 세계관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는 세계와 인간 경험의 상이한 측면들을 하나의 전체상 안으로 통합해 주는 역할을 한다.[18] 또한 세계관은 세상을 의미 있는 통일체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며,[19] 한 개인에게 삶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드러난 증상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온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며, 모든 인간 지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그것은 성질상 비과학적이요, 본질상 전이론적(pre-theoretical)이며 선과학적(pre-scientific)이다.[20] 철학은 사물들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포괄적이고

16) Charles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1980), 53.
17) James H. Olthuis, *The Universe Next Door,* 김헌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1990), 19.
18) Frederick Copleston, *Philosophies & Cultures* (Ner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135.
19) 윤원근, "독일 지적전통의 공동체 지향성과 그것의 세계관적 기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제28집 2호(1994): 124.
20) 전광식, 『학문의 숲을 걷는 기쁨』, 37.

www.kci.go.kr

과학적인 학문으로 피조물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신학은 사물들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으로 세상을 감염시키는 악과 그 치료책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독교 철학은 성경의 기본적인 범주에 비추어 피조물을 보고, 기독교 신학은 피조물의 기본적인 범주에 비추어 성경을 보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관은 구조의 문제와 방향의 문제에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21] 마찬가지로 구조의 문제와 방향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기독교 상담자에게 필요하다.

도식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곧 한 개인의 세계관으로 작용한다. '도식' 이라는 용어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조, 뼈대, 윤곽을 뜻하며, 칸트 철학에서 도식이란 어떤 계급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되는 어떤 개념을 의미한다.[22] 이러한 도식은 인지발달 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실이나 경험에 부여된 어떤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리도식은 내담자의 생각, 느낌, 행동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에게 상당히 해로웠던 초기(아동기)의 상황들을 다시 반복하도록 이끄는 역설적인 역할을 한다.[23] Young의 '초기 부적응 도식' 은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며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일생 동안 반복한다고 했다.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개인에게 형성된 도식 자체가 부정확하게 왜곡된 경우라서 모든 것을 부정확하게 왜곡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초기 부적응 심리도식은 세계관처럼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측면을 이루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심리도식에서 말하는 내담자들의 문제는 초기부적응 심리도식을 진실로 간주하고 믿기 때문에 문제

21) J. Richard Middleton and Brian J. Walsh, *The Transforming Vision,*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2011). 109-111.

22) Jeffrey E, Young, Janet S. Klosko and Marjorie E. Weishaar,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외 공역,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2011), 21.

23) Young, Klosko & Weishaar, *Schema Therapy,* 23.

www.kci.go.kr

가 생긴다. 그리하여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도식과 앞서 언급한 세계관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내담자에게 그리고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기독교 상담자에게 핵심적인 매개물로서 상담에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된다. 그것은 "심리도식치료에서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핵심적 정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응적인 방식을 찾도록 돕는 데 있다"[24]는 것과, 기독교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내담자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세속적인 신념인 초기 부적응 도식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방향을 전환하는데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관은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동기가 되고 수단과 목적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가 전제될 때에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담 관계에서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의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기독교 상담자의 세계관이 올바른 시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담자의 참된 변화를 유도해 갈 수 없다.

3. 세계관의 유형

각 세계관의 핵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의 구심적(求心的) 생각이 축을 이루어 모든 생각들이 그곳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원심적(遠心的)으로 확산되는 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축 사상을 대분할 때 대체적으로 삼재(三才)-天 · 地 · 人-으로 대분됨을 알 수 있으며, (1) 신(神), (2) 자연(地), (3) 인간(人)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세계관의 핵을 이루고 있어 결국 자연중심 세계관, 신중심 세계관, 인간중심세계관의 세 가지 범주에 모든 세계관들은 분류된다.[25] 여기서 각 범주의 세계관에 있는 여러 가

24) Young, Klosko & Weishaar, *Schema Therapy*, 25.
25)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서울: 혜선, 1995), 161.

www.kci.go.kr

지 아형(亞形)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중심 세계관[26)]

자연은 무시무종(無始無終)한 영원한 실재로서 모든 것의 모체며 원천이며 모든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며 종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자연중심세계관의 아형을 대분해 보면 원초적 자연중심세계관, 자연 · 이념중심세계관, 자연 · 인간중심세계관, 자연 · 사회중심세계관이 있다.

⑴ 원초적 자연중심세계관

원초적 자연중심세계관은 미개한 원시인들의 공통된 세계관으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들도 실재에 있어 자연세력의 신격화(神格化)된 현상으로 생령주의(animism)과 샤머니즘(shamanism) 등이 원초적 자연중심세계관의 변형된 형태가 된다.

⑵ 자연 · 이념중심세계관

자연 · 이념중심세계관은 자연이 세계관의 핵사상이긴 하지만 애니미즘(animism)이나 샤머니즘 등 원초적 자연숭배를 벗어나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념(ideas)을 실재로 보는 세계관이 고대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현상을 초월한 이념들이 실재라고 보는 세계관이지만 계시(啓示)를 믿기보다 인간의 사색의 결과로 이념중심세계관이 탄생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의 힌두교적 세계관이다.

⑶ 자연 · 인간중심세계관

자연 · 인간중심세계관은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의 근원과 원천으로 보는데 자연중심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가진 성질

26)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55-56.

www.kci.go.kr

을 회복하여 삶의 고뇌를 해탈하려는데 인간중심성이 있다는 것으로 불교의 세계관이다.

(4) 자연 · 사회중심세계관

자연 · 사회중심세계관은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자연을 영원한 실재로 보는데서 자연 중심적이다. 하지만 자연의 운행을 연구하여 인간계에 적을 한 여러 원리들을 도출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는데서 사회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유교적 세계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2) 하나님중심 세계관

고대에 있어 하나님중심 세계관의 출현은 정신사에서 가장 큰 혁명으로 이는 자연을 무시무종(無始無終)한 영원한 실재로 보지 않고 피조물로 보는 데 특이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역사 속에 직접 나타남으로서 인류사의 의미가 명확해진다.[27]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초적 동인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도덕적 · 영적 · 살아계신 유일신이시다.[28] 하나님은 우리 세계관의 가장 핵심에 존재해야만 한다. 하나님중심 세계관은 곧 기독교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위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인간중심 세계관

인간중심 세계관은 “인간이 만물의 주인”,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로 생각하는 근대 서구 문명에서 탄생되었으며,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면 초자

27)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56.
28)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107.

www.kci.go.kr

연적인 힘이 없어도 된다는 관점으로 인간중심 세계관은 기술의 우위성을 숭배하는 기술 중심 세계관으로 변질됨으로서 인간소외 현상과 이에 수반한 허무주의의 확산이 현대 문명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29] 인간중심 세계관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중심 세계관을 인간의 이성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한계는 인간이 자연의 과정으로서 자연의 인과적 과정으로부터 산출된 존재라면 인간 개인에게 가치의 존엄성과 책임을 돌릴 수 없게 되고, 악이 자연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며, 자연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자연재해든 각종 테러든 산출하고 있는 한 이러한 악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없고, 인간 존재에 대한 초월적 근거를 물을 수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약화되며, 인간존재가 자연의 한 부분이요 자연의 산물이라면 인간은 자연과정과 다름없이 그 존재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30] 것이다.

4. 세계관으로 보는 인간 이해

일반 세속 심리학이라는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히 상충된다. 상충되는 출발점은 이미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이해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Sigmund Freud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인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결정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면서 인간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본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외적 행동, 감정, 생각은 심리내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31]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29)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56-57.
30) 김영한,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한국기독교 철학회, 『기독교철학』제3호(2006): 34.
31) 강진령,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양서원, 2010), 32.

www.kci.go.kr

겪는 심리적 문제는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가 되며, 인간 행동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 되는데,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어린 시절의 심리 성적인 사건들의 갈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 세계는 물 위에 떠 오른 빙산의 일각처럼 인간 정신세계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무의식 세계가 인간이해 및 심리치료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32] 그의 무의식 개념이 인간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내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개인의 내면세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있는 생물학적인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과거에 고착되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 받아 마땅하다. 인간을 단순히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존재 목적이 있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배격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행동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외적인 행동 혹은 내적인 물리적 상태를 관찰하고서 이러한 자기 관찰에 기초하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 혹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결정하는 객체이다"라고[33] 가정 한다. 인간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결정된다고 보며 모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산물로서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인간은 주위 환경에 반응하는 양상에 따라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주의는 인간을 환경에 의해 영향

32) Glen O. Gabbard,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이정태·채영래 공역, 『역동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2002), 32.

33) Gary R. Collins, *The Rebuilding of Psychology*, 문희경 역, 『크리스찬 심리학』 (서울: 요단, 2007), 44.

www.kci.go.kr

을 많이 받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지닌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Burrhus. F. Skinner는 "인간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복잡한 체계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기계다"라고[34] 말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간을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학습되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스키너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가지는 많은 문제와 행동은 그 책임성을 외부에 기인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식되는데 책임을 지닌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곧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스키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기계로 취급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자체를 실추시켰으며, 인간을 동물과 같이 생각하고 실험을 하는 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인간을 비인격화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세계에 대하여 알기를 도외시 한 채 오직 문제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형성된 행동을 강화시켜 학습하는데 주력했다. 인간은 결코 학습에 의해 전적으로 변화하는 존재가 아니다. 증상을 제거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일은 변화의 의미를 모른 채 변화되었다고 단지 착각하는 일이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Carl Rogers의 접근법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실현화 경향(actualizing tendency)에 기초를 두고 있다."[35] 로저스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은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현경향성이 있는 존재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34) Burrhus 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Vintage/Bantam, 1972), 193.

35) Raymond J. Corsini and Danny Wedding, *Current Psychotherapies*, 김정희 역, 『현대 심리치료』 (서울: 박학사, 2007), 190.

www.kci.go.kr

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론적인 출발점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로저스의 저술들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는 치료 내에서 존경과 신뢰의 분위기만 갖추어진다면, 인간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굳게 믿는 믿음이다"[36]고 말한다. 또한 로저스가 보는 인간의 기본특성은 다음과 같다.[37] 1) 인간은 경험하는 존재다. 2) 사람 그리고 집단마다 서로 다른 현실세계를 지닌다. 3)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4)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다. 5)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인간은 본성에 따라 독특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이상에서 볼 때 그에게 있어 인간은 자신 속에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아 개념의 기본적인 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자원은 분위기만 제공하면 자아실현을 추구하여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인간은 죄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로저스는 인간을 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존재며 합목적적이고 전진적이며 건설적이고 현실적 존재인 동시에 아주 신뢰할 만한 선한 존재이므로, 인간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지도하고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38]고 말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만 초래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 특성에서도 로저스는 인간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공간을 없애 버렸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인간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

36) 안창일, 『임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84.

37) Simon Doniger, *The Nature of Man in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New York: Harper, 1962), 91.

38)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226.

www.kci.go.kr

심리학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긍정적으로 본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영혼의 활동을 정확하고 학문적인 연구의 도움으로 완전히 생물학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39] 그는 찰스 다윈의 신봉자였으며 다윈의 발달이론은 프로이드에게서 '하나님', '영원', '영' 등과 같은 실재들을 배제하는 세계관을 가능하게 해주었다.[40] 다윈은 진화론자로서 창조론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고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 역시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프로이드에 있어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없다. 결국 출발점부터 프로이드는 기독교 세계관과 위배되었다. 그의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드는 신학이라 함은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같은 절대자 신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어린아이로 퇴행하고자 하는 퇴행성 정신질환자라고 말했다.[41] 이러한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심리학은 인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결여한 채 하나의 과학이 되어 갔고 사랑, 이성, 양심, 가치 같은 것들보다 인간을 심리기제와 방어 기제들로서 이해하는데 취중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프로이드는 "종교란 환상이며 우주적인 신경강박증으로서 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대신 이루어 주는 소원성취"라고[42] 말한다. 결국 그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신경증 환자라고 치부해 버리고 말았다. 과연 기독교인이 퇴행성 정신질환자인가? 신경증 환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기독교 상담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기독교인이 가진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통해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상담학자 Crabb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 타락한 형상의 보유자

---

39) Roland Antholzer, *Pladoyer fur eine biblische Seelsorge,* 이해란 역, 『심리치료와 성경적 상담』 (서울: CLP, 2005), 43.

40) Antholzer, *Pladoyer fur eine biblische Seelsorge*, 44.

41)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서울: 학지사, 2009), 45.

42) Gary R. Collins, *Psychology & Theology*, 이종일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전망』 (서울: 솔로몬, 1992), 14.

www.kci.go.kr

(fallen image-bearers)라고[43] 보았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염되고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본래 인격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염되고 손상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일차적인 문제는 잘못된 의존에서 오며 무엇에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내담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담의 기제가 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한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속사람의 변화를 가지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이자 타락한 존재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조된 원리에 근거하여 내담자가 참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성경의 구조적 틀에서 본 인간의 이해는 창조-타락-구속이다. 창조 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의미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가는 존재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일하는 세계관으로 그의 자녀에게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반응의 패턴으로 태초에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셨으며 지혜로운 창조주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초점은 창조주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의미로 창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응답이다.[44]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그를 의존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서 존재해야만 그분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속을 이루

43) Lawrence J. Crabb,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 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2009), 129.

44) Middleton & Walsh, *The Transforming Vision,* 59.

www.kci.go.kr

는 것이 기독교상담에서만 가능하고 기독교 상담자만이 할 수 있는 독특성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기독교 상담자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성경에서는 'soul' 혹은 ' spirit' 속성으로서의 영적인 인간의 실제를 주장한다.[45] 영적인 존재로서 의식하지 않는 것이 심리학의 한계로 프로이드는 『환상의 미래(*The Future of an Illusion*)』(1927)에서 "종교는 사람의 정서적인 성숙도가 높아감에 따라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부터 이미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부정하는 그릇된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영적 존재와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망각한 채 인간이해에 대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코 인간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Ronald Koteskey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과 물체의 통합된 연합체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의사소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합리적 존재라고 믿는다."[46]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 이해해야 한다.

5. 기독교 상담자와 세계관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하는 실제 상담에서 우선 상담자의 세계관에 따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 전략을 세우게 되며 상담과정을 거쳐 내담자의 변화를 도모한다. 여기서 결국 상담자의 세계관은 상담과정

45) 윤상철, 『상담의 성서적 기초』 (사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6.

46) Ronald L. Koteskey,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1980), 17.

www.kci.go.kr

에 전반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에 있어 상담자 자신의 세계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상담이든 기독교상담이든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기독교상담에서 '변화'라는 개념은 단지 인간끼리 대화하고, 경청하며, 이해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감정적, 혹은 표면적 범주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본성에의 변화, 즉 옛 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까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47] 말이다.

상담에 있어 내담자의 변화는 상담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내담자의 변화는 통찰을 통해서 시작된다. 통찰이란 자신의 감정, 사고, 지각, 태도 등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의식이 바뀌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눈은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것이며 세계관과 연결된다. 그런데 만약 내담자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담자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형성할 수 없고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없어 통찰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통찰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상담의 과정에서 감정의 반영, 명료화, 직면 등 여러 가지 상담의 기술을 통해 내담자에게 통찰을 가지게 할 수는 있다. 결국 상담자를 통해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담자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상담자가 가진 세계관은 내담자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어떤 면에서든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직·간접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내담자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담자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느냐는 내담자의 변화를 이루는 측면에

47)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75.

www.kci.go.kr

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독교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내담자에게 우선 기독교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상담자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기독교상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new-being), 바른 존재(right-being)가 됨으로써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right-thinking)을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right-behaviors)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느끼는 것(right-feeling)을 경험하는데 있으며,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 받고 용서하는 삶을 인식시키는 과정임으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죄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48] 이러한 기독교상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담자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올바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담자의 종교가 무엇이든 진정한 변화는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있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은 도외시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정립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상담자 자신의 세계관이 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세계관에 흠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세계관이 침투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의식적 자각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

48)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21-22.

www.kci.go.kr

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살아계신 존재인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가 그분이 설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셨다고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의 본질적인 질서를 이해하게 하셔서 그것을 빚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람들을 기나긴 사건의 사슬이 낳은 우연한 산물, 곧 어떤 부수적인 산물로 보는 환원주의를 배격하며 사람을 영원성이 없는 사회문화적이고 심리학적인 존재로 환원하는 자연주의적 견해도 배격한다.[49)]

기독교 세계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결코 따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도 모르게 신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든 그럴듯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실수를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충돌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관의 내적인 통일성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자신의 신앙생활과 일치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고난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혹시 기독교 상담자로서는 그럴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혼합주의적인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뿌리내리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과연 기독교 상담과정에서 기독교 상담자를 통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원론적인 삶으로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

49) Paul G. Hiebert, *Transforming Worldviews,* 홍병룡 역,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541.

www.kci.go.kr

상담자가 어떠한 세계관으로 내담자를 대면하고 있는가는 상담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상담자의 세계관은 중요하다.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은 내담자 삶의 방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라면 자신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주 당연한 기초적인 문제라고 그 중요성을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위에 상담의 기초를 세우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기독교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좇아 살아가는 삶을 내담자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그것이 내담자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길목을 열어주는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 될 것이다. 훌륭한 상담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50] 앞으로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 모든 회원은 훌륭한 기독교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의 방향성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가 창조-타락-구속이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인 것을 깨달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 상담학회 공동체는 기독교상담의 기본 토대를 가진 기독교 상담자들이 더욱 기독교상담을 통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상담이 참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교육 곧,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

50) Larry Crabb and Dan Allender, *Hope When You're Hurting,* 정동섭 역, 『상담과 치유공동체』 (서울: 요단, 2003), 177.

www.kci.go.kr

Ⅲ. 닫는 글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는 무엇보다 영적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모든 피조 세계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각이다. 기독교는 개인의 구속을 이룬다. 구속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독교인의 순종을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위해서 내담자 개인의 세계관은 재창조 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 이다. 그것이야말로 내담자에게 반복적인 문제의 순환 고리를 끊는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기독교 상담자는 자신의 세계관 전수를 통해 내담자의 진정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자의 세계관은 내담자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밝히고 개방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굳게 서야 한다.

앞으로 기독교상담의 전망은 심리학과 신학, 영성이 접목되는 상담으로 보다 폭넓게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통합을 이루는 상담이다. 이때 심리학에서 발견 된 모든 원리는 Crabb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투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 위해 기초를 세워 기독교상담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치료를 촉진하는 관계들은 잘 선택한 기술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의 내적 삶에서 자라는 것이다.[51] 그렇다. 상담에서 그 효과는 상담자의 내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호관계 속에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결국 기독교 상담자는 모든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는지를 말하

51) Mark R. McMinn,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채규만 역,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서울: 두란노, 2006), 31.

www.kci.go.kr

게 되며, 기독교 세계관을 상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잘 정립되어 영적인 삶의 향기가 넘치는 기독교 상담자야말로 효과적인 기독교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영적 이해와 인격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 배제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소망과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다고 했다. 로저스는 기독교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을 버렸고 인본주의적 관점을 취했다. 스키너는 인간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인간의 가치를 저하시켰다. 심리학은 과학적인 활동과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 진술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이성이 모든 인간을 이해시켜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이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자가 주어진 여러 가지 인간 이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활용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한 활용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는 세계관을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이라는 세계관을 자신에게 정립 시키고 있어야 한다.

세계관은 신학이나 철학 같은 사고의 체계가 아닌 인식의 틀(perceptual frameworks)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식의 틀과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없다. 인식의 틀을 바꾸는 일은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에 있어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세계관의 변화다. 이는 기독교 상담자라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변화 요소다. 기독교 상담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인생의 기반이 그 힘을 상실하고 점점 희망이 없어 보이며 삶의 의미가 모두 사라져 실존적 고민에 빠진 현대인에게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 곧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www.kci.go.kr

그들에게 기독교상담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기독교 상담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기독교상담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며,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모든 기독교 상담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새롭게 재정립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통하여 비기독교적 상담에 대해 기독교적 변증과 아울러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소명을 나타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자 자신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기초 위에 기독교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저변 확대를 이루는데 그 몫을 담당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강진령.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양서원, 2010.
김영한.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한국기독교 철학회. 「기독교 철학」 제3호 (2006).
김용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2007.
김준수.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 (2012).
신명숙. "현대 독일 목회상담과 한국 목회상담의 전망". 『한국교회와 신학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안창일. 『임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2007.
윤원근. "독일 지적전통의 공동체 지향성과 그것의 세계관적 기초". 한국사회학회. 「한국 사회학」 제28집 2호(1994).
윤상철. 『상담의 성서적 기초』.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서울: 혜선, 1995.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8.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서울: 학지사, 2009
전광식. 『학문의 숲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98.
전광식.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
전영복. 『기독교 상담학』.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91.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베다니, 2002.
Antholzer, Roland. *Pladoyer fur eine biblische Seelsorge*. 이해란 역. 『심리치료와 성경적 상담』. 서울: CLP, 2005.
Clinebell, Howard J.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현대목회상담신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Collins, Gary R. *Psychology & Theology*. 이종일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전망』. 서울: 솔로몬, 1992.
Collins, Gary R. *The Christian Psychology of Paul Tournier*. 정동섭 역.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서울: IVP, 2003.

www.kci.go.kr

Collins, Gary R. *The Rebuilding of Psychology*. 문희경 역. 『크리스찬 심리학』. 서울: 요단, 2007.

Copleston, Frederick. *Philosophies & Cultur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Corsini, Raymond J. and Danny Wedding. *Current Psychotherapies*. 김정희 역. 『현대 심리치료』. 서울: 박학사, 2007.

Crabb, Larry and Dan Allender. *Hope When You're Hurting*. 정동섭 역. 『상담과 치유공동체』. 서울: 요단, 2003.

Crabb, Lawrence J.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출판사, 2004.

Crabb, Lawrence J.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 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2009.

Doniger, Simonr. *The Nature of Man in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Harper, 1962.

Faw, Harold W. *Psychology in Christian Perspective*. 유명복 · 김윤아 공역. 『기독교와 심리 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7.

Gabbard, Glen O.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이정태 · 채영래 공역. 『역동 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2002.

Hiebert, Paul G. *Transforming Worldviews*. 홍병룡 역.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Koteskey, Ronald L.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1980.

Kraft, Charles.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1980.

McMinn, Mark R.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채규만 역.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서울: 두란노, 2006.

Middleton, J. Richard and Brian J. Walsh. *The Transforming Vision*.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 의 비전』. 서울: IVP, 2011.

Morris, Charles G. *Psychology an Introduction*. 6th ed. 장동환 외 2인 공역. 『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1994.

Olthuis, James H. *The Universe Next Door*. 김헌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1990.

www.kci.go.kr

Skinner, Burrhus F.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Vintage/Bantam, 1972.

Young, Jeffrey E., Janet S. Klosko and Marjorie E. Weishaar.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외 공역.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2011.

Nate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0198300)

www.kci.go.kr

【 Abstract 】

Christian Counselor an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Christian Worldview

Yoon Jeong Park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counselors always treat the matter of human being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set in the right perspective on human beings. In other words, it is the essential mission for Christian counselors to reconsider the correct direction by judging from the Christian view.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re of the direction is applying Christian worldview to human being and Christian counseling. The main goal of Christian counseling makes people grow to one's whole personality through his or her changes in worldview, which has to be based on God's grace and Holy Spirit. The real change can be started from restoring the relationships with God and the renewal of worldview according to sound biblical perspective. This should come before actual changes. Also, the worldview can be changed effectively through Christian counselling, especially, led by Christian counselors having a proper worldview. For Christian counselors, therefore, it should be preceded to establish the desirable Christian worldview.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hristian worldview, this study emphasizes on having the right worldview, which is essential element for changing of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nother reason why the study focuses on the worldview is to avoid compromising with clients who don't have the firm worldview, and to practice the sincere Christian counseling by building Christian worldview among them.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counselor, change, Christian worldview understanding human

www.kci.go.kr